

국가예산 확보전 '총력'

정현을 익산시장, 국회 방문 내년 증액 건의

익산시가 경제 회복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9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주요사업 소관 상임위원들과 맹성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국회 예결위원, 국회사무차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국회단체 증액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날 정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수흥(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국회운영위원회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실을 찾아 국회단체 예산확보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조용복 국회의사 무치장을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익산시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지원의 당위성

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 정성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안호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을 만나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환경오염 피해지역(익산 장전마을) 친환경 복원사업 등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맹성규 예결위 간사와 신영대 의원, 신정훈 의원, 고민정 의원, 양기대 의원 등 예결위원을 만나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사업 등 익산시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 예산보증을 건의하였으며, 익산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삭감되지 않고 증액 될 수 있도록 재차 지원을 당



부했다. 정현을 시장은 "국회 예산심사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내년도 최종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북지역 의원, 지역출신 정치권 인사까지 인맥을 총동원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연말을 맞이하여 주변의 이웃에게 사랑과 정을 전해주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70여명 회원 참여 900여포기 담아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연말을 맞이하여 주변의 이웃에게 사랑과 정을 전해주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익산시 11개 여성단체 7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900여포기를 담았다. 매년 김장 행사처럼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직접 김치 재료를 손질하고 김치 속을 만들어 갖은 양념을 준비해 사랑과 정성으로 김치를 버무렸다. 세대당 10kg씩 약 230여박스로 포장해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김장에는 전년에 이어 국민건강보험 익산지사 직원 10여명이 참석하여 김장 버무리기, 포장하기 등에 힘을 보태었으며, 어려운 시기

에 더욱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데 마음을 더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딸기잼 만들기, 유자청 판매 등의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여 봉사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여성지도자로서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박정순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정성껏 만든 사랑의 김치가 지역 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좀 더 포근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며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슈가애플 · 스타후르트... 이색열대과수 재배 박차

익산시,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 시험포 조성 · 시범사업 추진

익산시가 기후 변화에 대비해 이색 아열대 과수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에 나선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내 390㎡ 규모 로아열대 과수 실증시험포를 조성해 보편화한 전혜향, 애플망고와 더불어 새로운 소비층이 선호할 만한 슈가애플, 스타후르트, 손골바나나 등 아열대 과수 8종을 식재할 계획이다.

이번 아열대 과수 실증포에서는 기존 타작물 농업인이 아열대 과수로 작목전환이 가능하도록 기존 하우스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수고 2m 내외인 과종과재배법이 쉽고 병해충이 강한 과종으로 선택했다. 농업기술센터는 10일 목천동정 현

미 농가의 만감류 과원에서 아열대 과수 시범사업의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를 통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아열대 과수 개발과 사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아열대 과수의 수요와 관심이 커지면서 아열대 과수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6개소에 5억원을 투입하여 재배시설 개선, 공동선별장 등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2019년에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만감류의공동선별·출하 시스템을 구축해 브랜드화를 추진했다. 올해는 목천동, 합리면 등 아열대

과수 재배농가 3개소에 묘목, 관수·관비시스템, 무인방제시스템 등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지원했다.

실제로 익산 지역은 토양이 비옥하고 일조량과 적산온도가 높아 우수한 감귤류 생산의 재배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5년전 귀농하여 목천동에서 감귤류 작목으로 '달밤이 농장'을 운영하는 최근호 농가는 "15브릭스 이상의 맛이 달고 과즙이 풍부한 고품질의 감귤류를 생산하고 있다"며 "과류 재배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감귤류 과종으로 어린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장을 조성하여 큰 호응을 얻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화학사고 대응 위한 유관기관 합동 도상훈련 실시

군산시는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실시한 도상훈련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시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최·주관했으며 종합상황실에서 진행했다.

참여기관은 시 환경정책과,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보건행정과, 군산소방서, 군산경찰서, 전북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익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주요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1부 도상훈련으로 관내 기업의 폐놀 누출 화학사고를 가장한 사고대응 훈련과 2부 화학사고 종료시점 결정을 위한 전문가 훈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번 합동 도상훈련은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및 화학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학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대응기관 간 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을 통해 도출된 재난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시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불시의 화학 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학 안전도시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안심식당 지정스티커 부착 · 위생용품 지원

군산시는 2021년 안심식당으로 신규 지정받은 120개소 음식점에 지정 표시(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음식문화개선관련 물품을 제작 지원하며 위드코로나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식서류를 취급하면서 종사자 마스크착용,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반찬 등 재사용 안하기, 손소독제 비치 및 환기실시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5가지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음식점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당 안심식당 지정 포지판과 위생용품(알집시, 집게봉, 수저집, 집게) 등에 안심식당 표시를 한 후 지원으로 소비자들이 안심식당을 알아 볼 수

있다. 또한 영업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영업자는 "위드 코로나에 공용 음식을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 안심식당으로 지정도 받고 위생용품도 지원받으니 안심식당으로 참여한 것이 기쁘고 뿌듯하며, 손님들도 또한 안심이 되고 위생은 물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찬 위생행정과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나라 식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어, 위드코로나를 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도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보조금 24억 적극 홍보 추진

익산시는 정부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시민이 한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정부24 로그인(www.gov.kr)만으로 정부의 각종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는 서비스다. 지난 4월 정부부처 서비스 300여종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시작으로 올 12월 자치단체서비스 6,000여종을 확대 운영한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서비스로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보조금 24를 이용하여 정부혜택을 찾을 수 있도록 시홈페이지·SNS·소식지, 행정복지센터 내 홍보물을 비치, 읍면동 각종 회의 시 서비스 안내와 신청도 독려하고 있다. /익산=이득훈기자

군산시의회, 유튜브 채널 개설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신속한 정보 제공과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뉴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시의회는 코로나로 시민과의 직접 대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산시의회 유튜브 방송은 본회의 라이브 스트리밍과 5분 발언 및 시정질문 등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 현장방문 활동은 편집 후 다양한 카테고리를 구성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영상으로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김영일 부의장은 "시민과의 비대면 소통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회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시민들과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정봉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